

병산존덕사복향기(屏山尊德祠復享記)

1630_이준(李埈) 지음_50×132cm



여강서원(蘆江書院)에 모셨던 류성룡의 위패를 병산서원 존덕사로 옮겨 오면서 작성한 이준(李埈, 1560~1635)의 기문이다. 류성룡의 위패는 지역 사람의 공의로 1620년(광해군 12) 여강서원에 옮겨 졌다가 1629년(인조 7) 다시 병산서원으로 돌아왔다. 현재 병산 서원 입교당(立敎堂)에 걸려 있다.

屏山尊德祠復享記

屏山在西厓之上游不十里 蒼壁圍屏 澄淵蓄黛 地奧而曠 士宜所於學 先生愛之 且以豐岳書院在官道傍車馬喧囂之地 不合於藏修 以詩諭諸生 移卜于此 士人南延諸公實幹其事 先生既歿 一府合謀 立祠於院之左 扁曰尊德 以寓羹牆之慕 安提督聘壽 金察訪允思協力藻飾之 廟貌聿新 血食已久 既而鄉議以爲先生之學 得退溪之傳 服食尊道祠 禮也 于時金斯文允安語于鄉曰 古之景行哲人 雖偶一徑由 而猶尸而祝之 況此地實先生所眷焉而婆娑者 杖屨所住 草木含馨 一朝而撤其篝火 無乃不可乎 咸謂所重在合享 雖祠版當遷 而廟宇則勿折 以爲他日更議之地 戊辰春 鄭愚伏經世及堦在洛 金斯文奉祖榮祖將復祀之議來語之 答以邦人好德出于血誠 今欲復祀 只是奉安祠版而已 一府而二祠 故事可據 無所嫌也 問於張參判旅軒公 其見亦相符 遂復享如舊 翌年冬 山長申公之信鄭公維藩請余識之 以余亦嘗與知其事也 既辭不可得 則乃喟然歎曰 甚矣秉彝之好懿德也 諸公妥享之願 終始惓惓如是 大學傳曰 有斐君子終不可諼兮者 於是而益驗矣 先生生而鍾河岳之精 幼而受詩禮之訓 學以莊敬爲本 道以實得爲貴 其符采粹然若冰壺 其德宇屹乎如泰山 此實當時鼓篋之士所親炙而心醉者 綜其要歸 皆有所本 先生嘗曰 學者志於道 而無真實之心刻苦之功 則氣決而馳奔 情放而川潰 欲衝藩而堤防之 非敬不可也 先生之所以教人者 無不本於體驗之切 故其得於心而行於身 立乎朝而報乎國者 皆從真實刻苦中出來 屬時大亂 艱舛使節 終能收潰裂之勢 建恢復之功 非所謂才與誠而相合 人與天而俱一者乎 卽今樛木一摧 歲月屢屈 典刑漸遠 吾道益孤 其在門下諸賢 形容其光霽氣象 爲私淑之徒

瞻仰之地者 世自有其人 顧此淺識庸見 將何以摹高狀明也 惟願諸公常以先生所施之教而勵之於身 有踐履之實而修其孝弟之行 無利欲之累而戕其仁義之性 且於羣居游泳之際 見屏匡之落落 想先生所樹之不拔 觀川流之混混 悟先生道體之無息 茲可謂善學先生 而今之尊德復祠之意 至此而方為真實矣 若夫履君子之庭 而專科舉之業 知榮身而忽於檢身 知求利而昧於求道 曰儒者之學止於是而已 則先生之所以選高明之具 為息游之地者 徒為眺聽之娛 而無果育之助 其可乎哉 余昔再過其地 至今江山秀色 炯然心目間 顧衰病閉縮 無復瞻衿佩之後 共蘋藻之薦 退而坐講堂 仰沂當年沂水之氣像 真自悼也

崇禎庚午暮春丁亥 通政大夫前工曹參議知製教李埈 端拜謹識

병산서원 존덕사의 향사 회복 전말기[屏山尊德祠復享記]

병산(屏山)은 서애(西厓)의 위쪽 10리가 채 되지 못하는 곳에 있는데,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물이 맑고 깊어 검푸른 먹이 쌓인 듯하며, 지세가 후미지고 텅 비어, 선비들이 학문하기에 적당하다고 하여, 선생께서 이곳을 사랑하셨다. 또 풍악서원(風岳書院)이 관도(官道) 가에 있어서, 지나다니는 수레 소리로 시끄러워서, 장수(蔣修: 면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詩)로 제생(諸生)들을 깨우쳐 주셨으므로, 이곳으로 터를 잡아 옮겼으며, 사인(士人) 남연록(南延祿) 등 제공(諸公)들이 그 일을 주관하였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 부(府) 전체가 의논을 모아 서원(書院)의 원전에 사당을 세우고 존덕사(尊德祠)라는 이름의 편액(扁額)을 걸어, 경장(羹牆)하는 그리움을 은연중에 나타내었다.

제목(提督) 안담수(安耽壽), 칠방(察訪) 김윤사(金允思)가 협력하여 문채(文彩)를 내어 꾸미고, 사당 모습을 새롭게 하여, 제사를 받든지 오래 되었다니, 이윽고 향리(鄕里)에서 의론하기를, 선생의 학문은 퇴계선생(退溪先生)의 적전(嫡傳)을 얻었으니, 존도사(尊道祠)에 채식(膾食)하는 것이 옳은 예(禮)라고 하였다.

이때 사문(斯文) 김윤안(金允安)이 향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적부터 훌륭한 행실이 있는 철인(哲人)은 비록 우연히 한번 지나친 적이 있어도 오히려 제사를 모시며 축원하였는데, 하물며 이곳은 실로 선생께서 마음을 두어 거니시던 곳이며, 벼슬에서 은퇴하신 뒤 지팡이와 신발 자국이 거저 간 곳이어서, 초목(草木)도 향기를 머금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향화(馨火)를 건어 치워버림에, 불가(不可)함이 없단 말인가? 모두 합향(合享: 존도사에 퇴계선생 위패와 함께 위패를 모심)하는 것이 소중(所重)하다고 하니, 비록 사판(祠版)은 마땅히 옮기지만, 묘우(廟宇)는 후일 다시 의논하도록 허물지 말라” 고 하였다.

무진년(戊辰, 1628, 인조 6) 봄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와 내[李埈]가 상주(尙州)에 있는데, 사문(斯文) 김봉조(金奉祖), 김영조(金榮祖)가 사당을 장차 회복하려는 의론을 하려고 오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분의 덕을 좋아함은 혈성(血誠)에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사당을 회복하려는 것은 단지 사판(祠版)을 봉안(奉安)하려는 것일 뿐인데, 한 부(府)에 두 사당이 있는 것은 고사(故事)에도 근거를 둘 수 있으니, 아무 혐의(嫌疑)가 없다”고 대답해 주었고, 참판(參判) 장여현(張旅軒) 공께 물어봐도 그 견해가 서로 딱 일치하여, 마침내 옛날처럼 향사(享祀)를 회복하기로 하였다.

이듬해(1629) 봄에 산장(山長) 신지신(申之信) 공과 정유번(鄭維藩) 공이 나에게 전말(顛末)을 기록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내가 일찍부터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숨

쉬며 탄식하여 이르되 "대단하구나! 사람들의 타고난 천성(天性)이 훌륭한 덕행을 좋아함이며, 제공들이 향사하려는 소원을 옮겨 여겨, 종시(終始) 마음을 기울임이 이와 같구나.

대학 전문(傳文·제3장)에서 말한 '문채(文彩)나는 군자(君子)여! 끝내 잊을 수 없네'한 것이 여기에서 더욱 증함이 되도다" 하였다.

선생은 태어나면서 하악(河岳)의 정기(精氣)를 모았고, 어려서는 시(詩)와 예(禮)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학문은 장경(莊敬)을 근본으로 삼고, 도(道)는 실질(實質)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며, 그 글의 문체는 순수하기 빙호(冰壺)같이 맑고 깨끗하며, 그 덕성스런 기우(氣宇)는 우뚝하기 태산 같았다. 이는 실로 그 당시 친히 가르침을 받거나 심취(心醉)하여 고협(鼓篋)하던 선비들이 그 가르침의 귀착하는 요점을 모아 엮어 두었으니, 모두 그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다.

선생은 일찍이 "배우는 자는 도(道)에 뜻을 두어야 하는데, 진실한 마음과 각고면려(刻苦勉勵)하는 노력이 없으면, 기운은 무너져서 수레 말이 달아나는 듯하고, 마음은 방일(放逸)되어 넷물이 넘쳐흐르는 듯하여, 고삐를 채우고 제방을 설치하려해도 경(敬)이 없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선생께서 사람을 가르치신 것은 절실한 체현(體驗)에 근본을 두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마음으로 체득하여 몸으로 실행하신 것이나, 조정에 서서 나라에 보답한 것이 모두 진실과 각고면려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으로, 큰 전란(戰亂)을 당하였을 때도 오로지 절도 있게 처리함으로, 마침내 무너지고 찢어지는 형세를 수습하여 나라를 중흥(中興)하는 공(功)을 세웠으니, 이른바 '재능과 정성(精誠)이 서로 합하고 사람과 하늘이 하나로 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오늘에 와서 (서원의) 대들보가 모두 꺾어지고, 세월에 거름 흘러가서, 법도는 점차 멀어져, 우리의 도(道)가 더욱 외로워졌지만, 그 문하에 있던 제현(諸賢)들에게는 그 광풍제월(光風霽月)·활짝 개어 빛나는) 같은 기상(氣像)을 형용하는 곳이 되며, 사숙(私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러 쳐다보는 곳이 되었다. 세상에는 적임자가 있는 법으로, 식견(識見)도 낮고 결박에 못 보는 이 나를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그 높고 밝은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직 바라노니, 제공들은 항상 선생께서 베풀어 준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에게 힘써 권면하여, 실천하는 결과를 얻고, 효제(孝悌)의 행실을 닦으며, 이익(利慾)으로 더러워져서 인의(仁義)의 성품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하기 바란다. 또 함께 모여 지내며 공부할 때, 병산(屏山) 절벽의 우뚝함을 보고, 선생께서 근본으로 삼으신 것은 뽐힐 수 없음을 생각하고, 화천(花川)의 흐름이 용솟음치는 것을 관찰하여 선생의 도체(道體)가 영원함을 깨닫는다면, 이는 선생을 잘 배웠다고 할 만하다. 오늘 존덕사에 복향(復享)하는 뜻이 이와 같은 점에 이른다면, 바야흐로 진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군자의 뜻을 밝고 다니면서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매달리고, 자기 몸 출세만 알고 자기를 검속(檢束)하는 데는 소홀하며, 이익을 얻는 것만 알고 도(道)를 찾는 데는 어두우면서, "유자(儒者)의 학문은 이정도면 되었다"라고 말하면, 선생이 가려 뽑아 두신 높은 식견은 소멸되리니, 이곳에서 공부하는 자들이 헛되이 즐기나 회롱하는 소리나 듣고, 과육(果育)하는 데는 도움이 없다면, 그래서야 옳겠는가?

내가 지난번 그곳을 지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강산의 경치가 빼어나, 심목간(心目間)에 환하였다. 늙어 병들고 오그라든 나를 돌아보니, 다시는 선비들의 뒤를 따라 함께 제단(祭壇)에 빈조(蘋藻)를 올릴 수도 없었다. 물러나 강당에 앉아 그 옛날 기수(沂水)의 기상(氣像)을 우리러 보노라니, 참으로 내 마음이 그리워 아프구나!

송정(崇禎) 경오년(庚午, 1630, 인조 8) 늦은 봄 정해일(丁亥日)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전공조참의(前工曹參議) 지제교(知製敎) 이준(李垞)은 몸을 기다듬어 절하고 삼가 적는다.

李垞, 『蒼石集』 卷13, 記, 『屏山尊德祠復享記』에 수록.

※ 번역: 병산서원 제공